속는 건 괜찮다 속이지만 말자

(잠언 11:1~31)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4.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6.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7.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속는 건 괜찮다 속이지만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속는 건 괜찮다 속이지만 말자'
속임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남에게 속는 것입니다. 셋째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속이려는 것과 속는 것과 스스로 속는 것의 세 가지 경우가 속임과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의 속임은 모두 마귀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속임에는 인간관계가 전제되어 있지만 스스로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나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때에 타인을 속이려 하게 되고 또한 타인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자 한국일보 칼럼에 나온 일화를 소개해봅니다.
임철순 씨가 쓴 칼럼인데 2012년에 윤동주기념사업회가 창설한 윤동주 시 작곡 경연대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연대회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작곡한 노래를 선별하여 상을 줍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와 문학의 혼을 기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가수 안치환 씨의 "편지"라는

노래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라는 멋진 구절로 시작하는 이 노래의 작곡자는 고승하 씨입니다. 고승하 작곡, 윤동주 작사의 노래를 안치환 씨가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2년에 상을 받은 노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곡가 고승하 씨는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1984년에 문구점에서 노트를 하나 샀는데 그 표지에 윤동주의 편지라는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승하 씨는 의심하지 않고 이 시를 윤동주 시인의 시로 여겨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안치환 씨의 앨범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진짜 주인은 윤동주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윤동주 시에는 편지라는 시가 없다는 것을 한국일보 칼럼을 쓴 임철순 씨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로 작곡가들이었습니다. 작곡가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 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작곡가 고승하 씨는 상을 반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트 표지에 윤동주 시인의 시로 쓰여 있었지만 노트 회사에서도 일부러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옮겨오는 과정에 생겨난 실수였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누구도 속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속음의 연쇄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쇄성 속에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주제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해석하는 열쇠는 ‘의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의 모습을 그려낼 때에 지혜가 가장 특징적이라는 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주 저자인 솔로몬에게 있어서 의인의 개념은 일천 번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했던 것이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곧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한 솔로몬을 합당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稱義,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인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마음에 드는 자 즉 의인으로 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 원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의인을 연결시켜봅니다.
의인은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혹시 속는 일이 생길지라도 손해나 상실이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의인이 속을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의인은 속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않고 혹은 속을지라도 상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인의 지혜로움과 악인의 어리석음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물과의 관계, 노동과 같은 경제생활, 인생관이나 개인의 성품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가 혼합 산재 반복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주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는 말씀도 이와 상통합니다.

속이는 이유는 남에게서 빼앗기 위함입니다. 한편 구제는 남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임수가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도 사게 되고 굳이 비싼 것을 고르기도 합니다. 광고나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영향력이 내 지갑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돈이 내게서 나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타인을 향한 자발성이 작용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루던 때였기에 상행위도 활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상행위가 사회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에 상인들이 화폐 대신 금이나 은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저울의 추를 바꿔가며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속이지 않더라도 살다보면 속이는 사람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가 만만찮은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속고 속이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작년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와 관련된 녹취 파일을 국민의당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작이었습니다. 당원이 조작을 했는데 국민의당 핵심 간부들은 이것을 사실로 알고 국민 앞에 발표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을 속였고 자신들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속임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귀에게 속고 나면 연쇄적으로 속임과 속음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빌어서 말하자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에게 속음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속은 어떤 사람은 재물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재물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자 저울을 조작합니

다. 사람들이 땅이나 주식투자에 혹하여 넘어가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속이려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근원은 바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속임수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1799-1837)이 남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살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이 시는 잡지나 신문에 정식으로 발표된 시는 아닙니다. 푸시킨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한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던 일꾼 처녀에게 화장지에 적어서 준 시였다고 합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처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위로를 주었던 위대한 시인 푸시킨의 삶은 시와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은 결코 초연하지도 않았으며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1837년 2월 10일에 사망하였는데 이틀 전인 8일에 눈밭에서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틀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됩니다. 숨을 거둘 때에 3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탄에 맞은 이유가 희한합니다.
당시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결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결투를 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프랑스 사람이었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조르주 단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결투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했던 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푸시킨은 아내와 함께 하는 삶이 행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깨어지자 슬퍼하며 노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에 빠진 남자와 눈밭에서 결투를 벌이고 총

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시를 통해 볼 때에 푸시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을 보면 미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미래를 살고 /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나 /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라고 하는데 지나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삶의 결과는 나를 속여 왔습니다. 삶 자체는 한 번도 나 자신을 향해서 기쁨이나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대를 하고 속아왔던 것입니다.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했지만 실상은 스스로 삶에 속은 것입니다. 삶에 속은 이유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통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푸시킨은 아내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지만 아내의 배반으로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삶은 결혼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라는 말은 이미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자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거야’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도 또 행복하지 않자 삶에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삶은 나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내가 나 자신을 속여 왔던 것뿐입니다.

푸시킨의 문제는 현재를 한없이 우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결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 씁쓸하고 괴로운 과거조차도 그리움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미래조차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평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은 세상의 지평면위에서의 흐름입니다. 푸시킨은 미래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시선을 세상의 지평면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만 향하게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인 가장 효과적인 단어가 바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미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진짜 속이지 않는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꿈꾸게 하는 미래는 하늘이 아닌 세상 안에서의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속지도 않고 속이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을 죽이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을 일천 번이나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기쁨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세상에 대한 판단을 일천 번씩 십자가에서 죽이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럴 때에 설령 타인에게 속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계산된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적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지름길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삶이 계속된다면 남에게 속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한 속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며, 행여 속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며 나의 판단을 죽임으로써 속임과 속음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일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해주셔서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속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